조계종 신도 배가운동 본격 START

조계종 포교원 · 중앙신도회 신도등록 MOU… "협업 기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신도를 배가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조계종 신도등록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계종 신도등록은 1996년 신도들의 재적사찰 갖기 운동 및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 등의 취지로 조계종에서 처음 실시했다. 현재 20여만 명 수준으로 2010년 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종도 정체성 부족 등으로 답보상태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각 사찰에서 실질적인 활동 역량을 지닌 신도회를 통한 신도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서 중앙신도회는 사찰에서 요청한 종단 신도증 발급 및 신도등록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전에는 찾아오는 신도를 받아들이는 등록체제였다면 이제는 찾아가고, 도와주는 관리체제로 신도체제를 바꿔야 한다. 사찰과 지역 신도들의 상황을 중앙신도회에서 파악하고 있어 포교원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포교원, 중앙신도회, 교구 및 사찰신도회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 운영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우려를 최대한 방지하고, 개별신도회도 관심 갖고 종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도등록 10년만에 전면 개편
신도회와 공동 관리, 업무협조
새 신도등록 사이트 발표도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신도 등록 및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원력을 갖고 신심배가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원은 이번 중앙신도회와의 협업을 위해 10년 만에 신도등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기존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8년 개발돼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되고, 신도 검색 기능이 없는 등 신도등록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포교원은 2년간 논의 및 개발을 거쳐 7월 17일부터 5개월간 개발에 들어가 이날 새 사이트를 선보였다. 포교원은 1개월간 베타버전 운영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2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해 종단과 각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신도등록 사이트.

새 프로그램은 먼저 재적사찰 신도 검색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의 교무금 납부 내역이 확인 가능하며, 전체 신도 수 및 미활동자 분류 등 자세한 신도 관리 기능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포교원 측은 "신도등록 프로그램 전면 개편으로 80% 가량의 새 기능이 탑재됐다"고 설명하며 "새해 새로운 맴버십 제도 추진 등 신도 배가를 위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교원 측은 "중앙신도회가 교구신도회, 사찰신도회의 중심으로 포교원과 함께 신도 체계 정비, 신행문화 개선 등에 함께 나서고, 종도로서 신도 공동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바람을 밝혔다.

스님들 전법활동, 연수 인증된다

조계종 교육원, 결사체 전법활동 연수 인증 규정 제정

구랍 20일 교육원 회의서 통과
승려 4인 이상 비영리 임의단체
전법활동 연수 점수 50점 부여

결사체에 최대 1000만원 지원도
"강의서 실천으로 교육영역 확대"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전법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구랍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제9차 교육원 회의에서 '승가결사체 전법 교화활동 연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새로 제정한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규정'은 기존 승려연수교육 인증과는 별도로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정의와 활동, 연수 교육 인증과 지원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승가결사체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의미하며, 조직 형태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단체로 한정했다. 전법활동 범위는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 군부대 등 계층 · 직장직능부터 호스피스 · 간병 · 노인수발 등 자비보살행, 인권 · 노동 · 여성 · 환경 등 사회활동 등까지 광범하게 포함됐다.

전법활동에 나서는 승가결사체에 대한 연수 인증은 교육원 공고 후 서류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교무회의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될 경우 1년 동안 연수 인증이 이뤄진다. 이후 이들에게는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원은 승가결사체가 원활한 전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도 진행한다.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들을 심의해 교육원 교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 임의단체 신청을 해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사본과 결사체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승가결사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법활동 결과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은 매년 11월까지, 보조금 신청은 2월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연수 인증 신청은 4월, 보조금 신청은 5월까지 받는다.

이번 신설제도에 대해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스님은 "7대 교육원의 지표는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이다. 이번 제도는 승가의 의무인 자비보살행으로써 전법교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면서 "기존의 승려 연수가 강의실 교육에 국한됐다면, 이번 제도로 실천과 활동으로 교육 영역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퇴색하고 있는 승가 공동체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님들의 전법교화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겨울철 군장병 피부 촉촉하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스킨케어 전문브랜드 '애덜린'으로부터 마스크팩 5만3000개를 전달받아 1월 15일부터 일선 각 부대에 마스크팩 보급을 시작한다. 구랍 27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과 이성연 애덜린 대표이사(사진 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군장병들에게 전달될 마스크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노덕현 기자

〈A1면 '문화올림픽'에 이어〉

이처럼 최 지사와 강원도청의 상반된 행보에 불교계는 적잖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강원도는 "기재부 방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월정사 측과 대화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돼 월정사의 섭섭함이 쉽게 가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화가 없었던 건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대변인을 통해 월정사와의 대화를 지사님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 낮은 문화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정사 행정실장 두엄 스님은 "유럽의 민족 ·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유서 깊은 성당 등 가톨릭 시설을 꼭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 종교라는 선입관을 갖는다면 제대로 문화를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는 뒷전이고, 모든 것을 종교로 해석하려 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문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한 "지난해 3월 월정사에서 IOC 집행위원회 만찬을 진행했고,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의 경우 자녀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오는 3월에는 IPC 패럴림픽 집행위원회 만찬도 예정돼 있다. 호텔 · 레스토랑이 아닌 한국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도 "문화와 종교 개념을 혼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와 종교를 혼동하진 않는데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시각은 국가적 망신이나 다름없다"며 "문화를 특정 종교의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 때문에 그 지역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제한하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현 스님은 "어느 올림픽이든 단순 행사만으론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지속사업을 만들어내려면 문화 연계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다. 월정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문화가 집약된 종합적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구랍 23일 제44회 교구종회서 문화올림픽 추진과정서 겪은 불교계 사업 배제, 오대산사고전시관 예산 증액 무산 등에 따른 입장문을 채택했다.

월정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종단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오대산과 월정사의 유무형 자산을 제공해 한국 정신문화를 소개했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와 강원도는 월정사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홀대와 외면, 종교편향 탓에 월정사는 불교의 자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종교편향에 맞서 산문폐쇄 등 불교 자존을 위한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도 월정사의 입장을 전해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28일 월정사 보고를 받고 "산문폐쇄는 큰 여파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나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정부 · 강원도와 대화가 원만히 이뤄져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높은 산중턱에 좌정하시어 묵묵히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갓바위 부처님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고 갓바위 부처님 도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본사 사부대중은 올해도 모든 이들의 소원성취와 인연공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戊戌년 새해에도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주지 법성 외 사부대중 일동 -

- 천년을 이어온 법등, 천년을 이어갈 불사 - 12가지 석등
- 하단 생활관 동기와 불사

- 소중한 인연의 동참을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갓바위 Tel. 053.851.1868 / 853.9877